

7 광주일보
제17549호 2006년 9월 11일 월요일

서울 종각역 지하 상인회 가스 누출 집단소송 준비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변영회는 지난 8일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상가변영회 강계명 회장은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적지않은 만큼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집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변영회 측은 가스중독 상인들에게 11일까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도록 하고 상가별 피해규모도 내주부터 집계를 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어제 장사를 중단했고 오늘도 상당수 가게가 문을 닫았다"며 "여기에 냉방기 가동이 안 되고 사고 소식이 시민들에게 퍼져나가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어서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3년 상가 리모델링 이후 냉난방 시설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가 많아 그동안 '부실공사'라며 시설관리공단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2004년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은 소방서 등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냉난방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CO)가 1층 상가로 연결된 환기구와 배관을 통해 분출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냉난방기 관리책임을 지는 기계실 직원·민간용역업체·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중 일부를 입건키로 했다. /연합뉴스

주식 임의거래 증권사직원 책임 30%

법원, "증권사·고객 책임이 더 크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손실을 끼쳤더라도 해당 직원보다 증권회사와 계좌를 맡긴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도현 판사는 고객에게 대신 변제한 주식거래 손실금을 갚으려 A증권사가 자사 차장이었던 황도(4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해도 황씨가 고객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주식을 거래하고 잔고 상황을 허위로 알린 데다 주식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황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황씨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직장 상사 김모씨의 지시로 2000년부터 김씨의 대학 친구인 고객 김모씨와 신모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주식거래를 했으며 고객 김씨가 A사 주식 3천주를 사달라며 4천만원을 입금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허위 잔고 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육지 상륙 저지" 필사의 벌목작전



소나무 재선충병을 예방하는 신안군과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직원들이 감염 의심목을 벌채해 훈증(燻蒸)처리하고 있다. 재선충병은 감염목을 훈증처리 한 뒤, 소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제책이다. /신안 압해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소나무를 살려라'는 특명을 받은 그들은 '소나무를 죽여야만 했다. 소나무 재선충(材線蟲)병 예방(豫察)원들의 일과는 감염된 소나무를 찾아 '사형'을 집행하면서, 다른 나무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하루빨리 재선충 천적이나 백신이 발견돼, 더 이상 소나무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산 152번지, 9월 초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나온 신안군 환경녹지과와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계 직원들 눈에 띄어 갈색으로 변한 소나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 크기 0.6mm~1mm(암컷 0.7mm~1.0mm, 수컷 0.6mm~0.8mm)의 머리카락 모양 재선충이 나무조직 내에 살면서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 일단 감염되면 1~3개월 이내에 소나무가 100% 말라 죽는다.

이상 채취해 전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면 1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김 반장은 "이 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됐을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했다.

검사 결과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확인되면, 나무는 소각된다. 재선충병 방제책은 소각·훈증·파쇄 등이 있지만, 태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이 나무로부터 ▲반경 1km 구간은 '재선충병 확산우려 구역' ▲2km는 '확산 가능 구역' ▲4km는 '확산경계 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집중 관리된다.

신안군에서는 올해 압해면 신장·장갑·분배리에서 341그루의 감염 의심목이 발견됐으며, 이 중 63그루는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신안군은 올해를 '소나무 재선충병 박멸의 해'로 지정하고, 전담팀을 꾸려 매일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계 직원 9명을 동원해 항공에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 환경녹지과 김성주(31) 예찰원은 "재선충병 감염 나무를 조기에 발견해 소각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1997년 5월 구례에서 처음으로 재선충병이 발생, 현재까지 신안·목포·영암 등에서 2천여 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감염됐다. /신안=조원배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신안군·산림항공관리소

감염 의심 나무 잘라내

63그루 훈증·소각 처리

나무다. 20여 년 쯤 돼 보이는 이 나무는 이미 잎이 완전히 말라 죽어져 있었다. 직원들은 "열 나무에 전염되었어. 잘라내 훈증(燻蒸·더운 연기 등으로 살충하는 것)처리 할 수밖에 없겠는 걸"이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직원들은 전기톱으로 밑동 위 5cm만 남겨놓고 이 나무를 잘랐다. 줄기는 1m20cm씩 상·중·하단으로 각각 절단했고, 가지는 50cm 미만으로 잘라 차곡차곡 쌓았다. 이어 살충제인 '킬퍼'(Killper)를 나무 구석구석에 뿌리고, 하얀 비닐을 뒤덮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김영석(35)반장은 훈증 작업 도중 조심조심 나무 줄기의 겹질집을 갈로 벗겨내 병투에 담았다.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정밀 검사할 시료(試料)다. 각 단마다 30g

쳤다. 이유는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감시들은 싸움을 말리던 행인 김모(25)씨 등 2명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H씨가 머리를 다쳐 뇌출혈을 일으켰다.

H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국인 가해자들이 달아남에 따라,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식당서 공기총 쏘며 난동

광주 북부경찰은 10일 식당에서 공기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 등) 이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M식당에서 친구인 조모(54)씨와 다름을 벌이다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둔 공기총을 가져와 식당 천장을 향해 발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조씨가 이혼한 자신의 전 부인에게 관심을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배기자 ls54@kwangju.co.kr

외국인 강사 5명·한국인 3명 광주 도심서 패싸움

캐나다인 1명 중상

외국인 강사들과 한국인들이 광주 시내 한복판에서 집단으로 싸움을 벌여, 캐나다 출신 강사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0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광

산동 구(舊) 시청 4거리에서 광주 모영 어학원 강사 H(26·캐나다 인)씨 등 외국인 5명이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3명과 시비를 벌이다,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이 마주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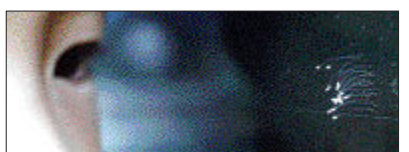


연제2동립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
문의 (062)366-4220

"내 후에 우담바라 24송이 피었어"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우담바라'(優曇婆羅·사진 오른쪽)로 추정되는 꽃이 광주 시민의 한 자동차에서 자라고 있어 화제.

○...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용봉골국밥'을 운영하는 김상희(42)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자신의 그레이스 승합



차 운전석 뒤편 차체에 '우담바라'로 보이는 꽃 24송이가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우담바라는 3천 년에 한 번 피는 신령스런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열심히 불교를 믿자 부처님이 들봐주신 것 같다"며 신글빙글.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귀뚜라미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주부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보일러를 사용하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를 **귀뚜라미보일러 A/S센터 (1588-9000)**에서 미리 점검 받아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십시오.

● 귀뚜라미 보일러 A/S센터에서 사정한 영수가 있습니다. ● 계절구입 및 A/S쿠폰은 1588-9000으로 배부됩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A/S센터는 1588-9000으로 배부됩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A/S센터는 1588-9000으로 배부됩니다.

50% Sale

이택리 가구

1) 2년반대 大 세팅
2) 천연 리뉴얼 새 단장 오픈기침
3) 이택리 전직 Design 한국출판 인쇄기

13종=별첨가구, 3-15종=별첨가구 시세 50% 할인대상.

● 불소처리하는 고급가죽의 고급가죽 시세 50% 할인대상입니다.
● 수직인쇄기에서 인쇄된 가구가 있습니다.

문의: 장동호대표 010-999-0000 / 02-226-7555~7

스토브 매점 및 디어하나명품점 100459